

유럽인문아카데미 2025 봄학기

신유물론의 자연철학 1강

신유물론의 문제들, 들뢰즈와 라투르에서

강사 : 최종덕(philonatu.com)

2025년 4월 7일

1. 지식에서 사유로
2. 사유의 과학적 배경

1강 1부

들뢰즈의 영향, 신유물론이 사유하는 문제들

미분학과 리만 기하학

# 실재론 개념의 맥락, reality

- 사실주의 예술(문학, 미술) – (라투르 존재양식 375쪽 참조)
- 존재론적 실재론: 플라톤 이데아론
- 과학적 실재론: 자연과학 기반 실재론, 현상주의에 근접 –아인슈타인의 실재론
- 추론적 실재론, B. 러셀의 inferred entity
- 소박 실재론
- 들뢰즈의 실재론, virtuality로서 실재 ; (real = actual + virtual)
- 바라드의 실재론, agential realism
- 닐즈 보어의 신-실재론 (아인슈타인의 실재론과 대비)  
유집한문아카데미, 최종석의 신유물론강의 1강

# 네트워크 실재론, 객체중심 실재론

network realism, relational realism, object-oriented realism

라투르 ANT

실재론으로 해석 가능한가?

비-인간 행위자 actant 인정

인간 외 사물, 기술, 동물도 세계 구성에 개입

관계 이전의 독립성 부정

존재자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의 물질성

사물, 기술, 문서, 환경 등 물질적 요소 강조

- B. 러셀의 실재론

사물 이전에 “관계”



존재(동일성) 이전에 “차이”

# 미분법은 "차이 자체"를 다루는 기술

- 기존 대수학은 크기, 값 중심 → 동일성 철학
- 미분법은 변화, 운동, 차이 중심 → 들뢰즈 존재론

## 들뢰즈, 차이와반복 4장

현”이 가능해진다. 보르다스드물랭의 해석이 갖는 설득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dy/dx$  나 0/0에서 소거되는 것은 미분들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함수 안의 개체이자 그 개체의 비율적 관계들일 뿐이다.(보르다스에게서 ‘개체’는 특수자인 동시에 일반자로 이해된다.) 여기서 한 유(類)에서 다른 유로 어떤 이행이 일어난 것이고, 말하자면 거울 이면으로의 이행이 일어난 셈이다. 함수는 [곧 대수방정식은] 가변적인 부분을 끌어버렸거나 변이의 속성을 상실했다. 함수가 대표하는 것은 단지 연산(演算)을 통해 끌어낸 불변자일 뿐이다. “함수 안에서 변화하는 것은 소거되고, 또 소거되는 가운데 자신의 저편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해준다.”<sup>5</sup> 요컨대 극한이나 경계는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어떤 진정한 절단 coupure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극한은 함수 자체 안에서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사이의 어떤 경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뉴턴의 오류는 미분들을 [곧  $dx$ 와  $dy$ 를] 제로와 등치시킨다는 데 있다. 반면 라이프니츠의 오류는 미분들을 개체나 변이 가능성과 동일시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볼 때 보르다스는 이미 미분법에 대한 현대적 해석에 근접하고 있다. 즉 극한은 더 이상 연속적 변수나 무한한 근사치 등의 관념들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와는 달리 극한이라는 기초개념은 연속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근거짓는다. 그 개념을 통해 연속성에 대한 정태적이고 순수하게 이념적인 정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극한 개념 자체가 정의되어야 한다면, 정의상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오로지 수(數)이거나, 혹은 차라리 그 수 안의 보편자일 뿐이다. 현대 수학자들은 이 보편자의 본성을 정확하게 한정하는 데 성공했다. 가령 그 본성은 (데데킨트적인 의

미의) ‘절단’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절단은 수의 근접 유(類)를 구성하고, 연속성의 이념적 원인이나 양화 가능성의 순수 요소를 구성한다.

### 질화 가능성과 상호적 규정의 원리

$dx$ 는  $x$ 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그리고  $dy$ 는  $y$ 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전적으로 미규정 상태에 있다. 하지만  $dx$ 와  $dy$ 는 서로 관계할 수 있고, 그런 한에서 완전히 규정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정 가능성의 원리가 본연의 미규정자에 상용한다. 보편자는 어떤 무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르다스가 말하는 것처럼 “보편자의 비율적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dx$ 와  $dy$ 는 일반자는 물론이고 특수한 개별자 안에서도 전적으로 미분화(未分化)되어 있다. 하지만 보편자 안에서, 그리고 보편자에 의해 전적으로 미분화(微分化)되어 있다.  $dy/dx$ 의 관계는 어떤 분수 형태의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직관상의 특수한 양들 간에 수립되는 관계도 하물며 가변적인 크기들이나 대수적인 양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어떤 일반적 관계도 또한 아니다. 각각의 항은 절대적으로 또 다른 항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 여기서 어떤 독립변수를 지시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히 어떤 상호적 규정의 원리가 관계의 규정 가능성에 상용하게 된다. 이념이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자신의 기능이나 함수를 확립하고 또 전개하는 것은 바로 어떤 상호적 종합 안에서이다. 따라서 미분적 관계나 비율은 어떤 형식을 통해 규정 가능한가? 모든 물음은 바로 이렇게 집약된다. 그런 가능성은 우선 질적인 형식에서 오고, 또 이런 조건에서 미분비는 이른바 원시함수와 본성상 다른 어떤 함수를 [다시 말해서 도(導)함수를] 표현한다. 원시함수( $x^2 + y^2 - R^2 = 0$ )가 곡선을 표현할 때, [도함수]  $dy/dx = -x/y$ 는 이 곡선에서 나타나는 어떤 삼각법적인 탄젠트[기울기], 즉 곡선에 접하

는 선이 가로 좌표축과 함께 만들어내는 각도의 탄젠트를 표현한다. 종종 강조되어왔던 것처럼, 미분에 포함된 이런 질적 차이나 그 ‘함수의 전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절단은 유리수 계열의 항들과는 본성상 다른 어떤 무리수들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는 첫 번째 측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미분비(微分比)는 [원시함수와는] 다른 질을 표현하는 한에서는 여전히 이 질(예를 들어 탄젠트)에 상용하는 특수한 값이나 양적 변이들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분비는 이제 다시 미분화될 수 있고, 이때 이것이 증언하는 것은 단지 이념의 역량, 곧 이념의 이념을 낳는 이념의 거듭제곱 역량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질과 관련된 보편자를 [다시 말해서 미분비를], 그것이 어떤 다른 질과 관련하여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값이나 양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보편 함수 안에서 보편자가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다른 질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질화 가능성의 순수 요소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념은 미분비를 대상으로 한다. 즉 이념은 변이나 편차를 통합, 적분한다. 하지만 이때 통합되는 변이는 더 이상 불변의 것으로 가정된 어떤 비율의 가변적 규정(‘변이 가능성’)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것은 비율 그 자체의 변이 등급이나 정도(‘변이성’)<sup>6</sup>이고, 이런 변이 정도에는 가령 곡선들의 질화(質化)된 계열이 상용한다. 만일 이념이 변이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이는 변이성이나 다양성이라 불러야 할 어떤 것을 위해서이다. 구체적 보편자인 이념은 지성의 개념에 대립하고, 그 외연이 넓을수록 그 만큼 더 광대한 내포를 지닌다. 비율적 관계의 정도나 등급들의 상호의 존성,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그 비율적 관계들의 상호 의존성, 바로 이것이 이념의 보편적 종합(이념의 이념 등등)을 정의한다.

5 Jean Bordas-Demoulin, *Le Cartésianisme ou la véritable rénovation des sciences* (Paris, 1843), II, 133쪽 이하. 그리고 453쪽 이하. 르누비에 Charles Renouvier는 보르다스의 명제들을 적의를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명제들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La critique philosophique*, 제6년째 권(1877) 참조.

6 예주 | variété. 변이 variation나 변이 가능성 variabilité이 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면, 변이성은 “차원 사이의 변화, 차원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듯하다. 그것은 곧 변이의 단위를 바꾼다는 뜻일 것이다. 들뢰즈는 이런 의미의 변이성을 띤 연속체를 다양체라 부른다.

듭제곱(역량)은 상호적 규정의 형식이고, 이 형식에 따라 가변적인 크기들은 서로에 대한 함수로 파악된다. 또한 미분법이 다루는 크기들은 한정되어 있다. 오로지 하나가 적어도 어떤 다른 하나보다는 상위의 거듭제곱을 지니는 그런 크기들만이 고려되는 것이다. 미분법의 첫 번째 행위는 아마 방정식의 탈잠재화, 곧 '거듭제곱 제거'에 있을 것이다.(가령

$2ax - x^2 = y^2$  대신  $\frac{dy}{dx} = \frac{a-x}{y}$  을 얻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두 형

태 속에서 이와 유사한 것이 이미 발견되고 있었다. 거기서는 직관상의 양 quantum과 개념상의 양 quantitas의 소거가 양화 가능성의 요소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이었고, 질의 박탈이 질화 가능성의 요소가 출현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라그랑주 Lagrange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는 잠재력 제거가 순수 잠재력[거듭제곱의 잠재력]의 조건이 된다. 이는 그것이 한 변수가 함수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sup>10</sup> 곧 그 함수는  $i$ 의 거듭제곱들과 이 거듭제곱들의 계수들에 의해 구성된 어떤 한 급수(級數) 안에서 전개되고, 그 결과 이 변수를 전개하는 함수가 다른 변수들의 함수들과 비교될 수 있기에 이른다. 잠재력의 순수 요소는 첫 번째 계수나 첫 번째 도함수에서 나타난다. 반면 여타의 도함수들, 그리고 따라서 그 급수의 모든 항들은 반복되는 똑같은 연산들의 결과이다. 그러나 정확히 문제는 전적으로, 그 자체가  $i$ 와는 독립적인 이 첫 번째 계수를 규정하는 데 있다. 브롱스키의 반론이 개입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이 반론은 카르노의 설명(오차들의 상쇄)은 물론이고 라그랑주의 설명(테일러의 급수)도 논박하고 있다. 카르노에 대한 브롱스키의 반론에 따르면, 이른바 보조 방정식들이 부정확한 이유는  $dx$ 와  $dy$ 를 합축하기

의 원어는 dépotentiation이고 수학적 문맥에서는 정확히 거듭제곱 제거를 의미하는데, 들판즈는 미분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차를 순수 잠재력에 해당하는 존재론적 역량이 나타나는 과정과 상응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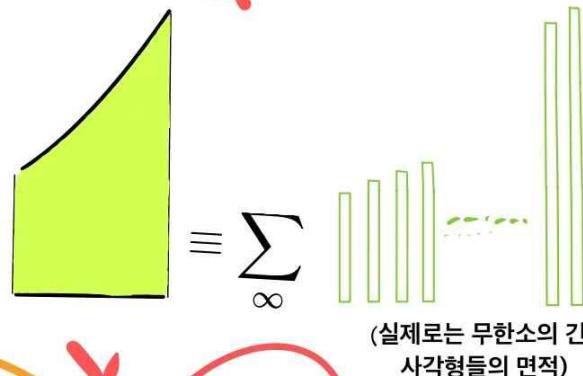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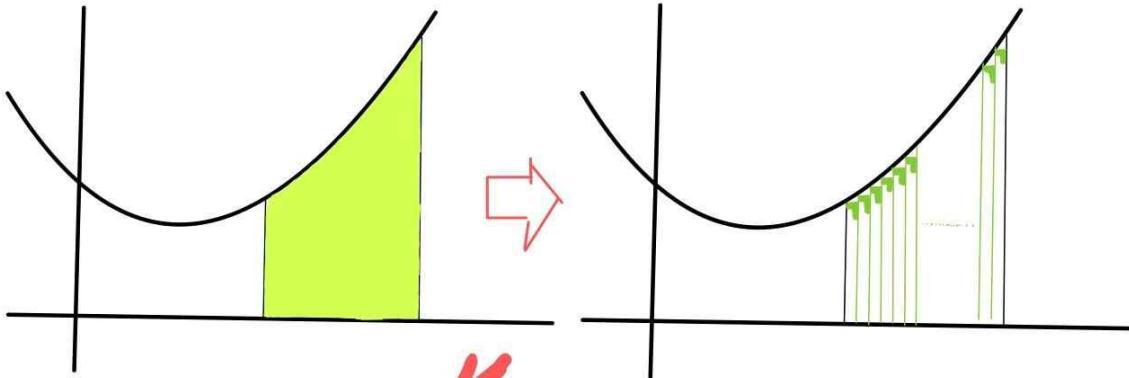
10 역주 | 이 함수적 전개는 다음과 같다:  $f(x+i) = f(x) + f'(x)i + \frac{f''(x)}{2} i^2 + \frac{f'''(x)}{2 \cdot 3} i^3 + \dots$

근대화된 존재양식의 슬픔은 운명적(결정론적)  
이어서 이런 슬픔을 분노하거나  
전부 날려 버리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만,  
분화되지 않은 존재자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그런 희망은 우리 삶의 생존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생명은 곡선의  
공백 안에 있는데, 공백이  
사라지면서 존재의 간접성과  
연결망도 같이 없어졌다.

더블클릭의  
미적분 근사법을 통해  
원호 곡선 상의 공백은  
무시되고 만다.

(라투르 존재양식 고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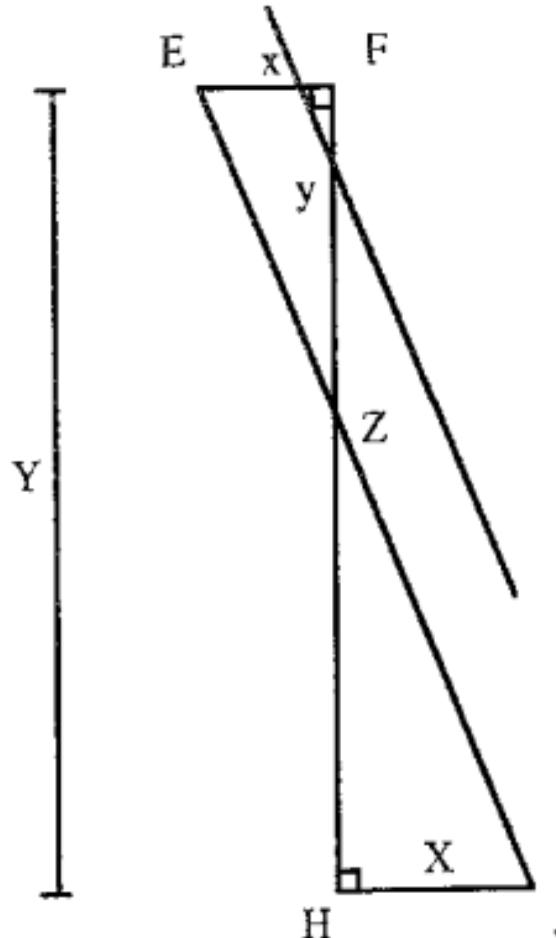


사라진  
"공백"  
HIATUS

<근대화, 미적분된 존재의 운명>

< 라투르 존재양식 읽는 방법 >  
유럽인문아카데미, 최종덕의 신유물론강의 1강

# 17세기 라이프니츠의 미적분 : 미소 미분소infinitesimals은 사라져도 미분관계는 존속subsist한다



$dy/dx = z$  (미분 상호관계는 규정가능성determinable)

$dx$ 와  $dy$  (미분 개별항은 미규정적)

라이프니츠 미분소와 미분관계

- 라이프니츠 :  $dx$ ,  $dy$  와 같은 무한소를 가설적으로 상정한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에서 무한소는 가상적 제로에 해당하므로 그 실재적인 거리는 무시된다.
- 뉴턴 : 무한소를 가정하지 않으며 단지 아주 작은 무한소의 실재성real을 유지 한다. 뉴턴의 Non Fingo
- 이렇게 라이프니츠의 무한소와 뉴턴의 무한소는 존재론적으로 다르다. 뉴턴의 접선을 만드는 두 점 사이의 간격(secants)은 실재간격real length이지만 라이프니츠의 secants는 가상의 무한소이다.(LN224)

마누엘 델란다에서 "특이점"은 물질-에너지 장(field)의 패턴이다.

- 델란다는 들뢰즈 특이점을 물리학, 과학, 시스템 이론으로 재해석 한다.
- 예를 들어 패턴형성(pattern formation), 자기조직(self-organization)의 지점이 특이점이며, 구조가 생성되는 임계상태(critical point)를 말한다.

# 들뢰즈에서 미분소와 분화소

- '미분소(differentiel)'
- '분화소'로 번역되는 'differential'
-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 이분법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합생

- 과학과 인문학, 과학과 철학
- 서양학과 동양학
- 물리학과 생물학
- 분석과 종합
-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
- 우주 크기와 원자 크기
-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 욕망과 도덕
- 기억과 망각
- 물러섬과 나아감
- 자연학과 인간학 - 인문생태학의 가능성
- 지각된 자연과 수학화된 자연
- 자연과 문화
- 서양과 동양
- 고전과 현대
- 너와 나
- 선과 악
- 감성과 이성
- 정신과 신체- 물질과 사유, 물질과 의식
- 자유의지와 결정론
- 주체와 객체

# 베이트슨의 이중구속double bind (1950)

- 모순된 두 발신음이 동시에 수신되는 상황

# 마음을 응시하는 마음, 신승철

- 이를 벗어나기 위해 신승철은 '마음을 응시하는 마음' 즉 초맥락적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중구속의 제약(논리)은 공동체 관계망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횡단의 논리로 뒤바뀌게 된다. 이는 관용의 넘어서 있다. 탈경계의 실천을 요청한다.

(신승철 2019, 누가 방안의 코끼를 꺼낼까)

# 횡단의 논리는 들뢰즈, 과정과 사건으로 생성되는 다양체로 녹아든다

다양체의 자연학적 배후(들뢰즈에서)

조프루아 상띨레르(Geoffroy Saint Hilaire) : (동물) 신체는 뼈마디들로 구성된 다양체다

린 마굴리스(Lynn Margulis): 생물은 박테리아성 미생물들의 다양체다.

아르또(Antonin Artaud) : 몸의 표면과 의식 심층을 위상공간 형식으로 변성시키는 강도적 다양체다.

# 리만 공간

- 리만 이전 공간개념은 유클리드적 공간 개념으로, 공간은 미리 주어진 빈 틀이라서 사물은 그 공간 안에 놓이게 된다. 칸트의 경험적 공간, 뉴턴의 절대공간을 말한다. **절대적 공간**
- 리만 이후 공간 자체가 사물의 내적 조건으로서, 공간은 위상공간이며 다양체 개념의 기초다. 사물의 관계, 힘, 상태 변화가 공간을 만든다는 뜻이다. 즉, 공간은 외부 틀이 아니라 "생성되는 것"이다. -**관계적 공간**(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남) 이를 리만 다양체라고 부른다.

# 들뢰즈가 리만으로부터 얻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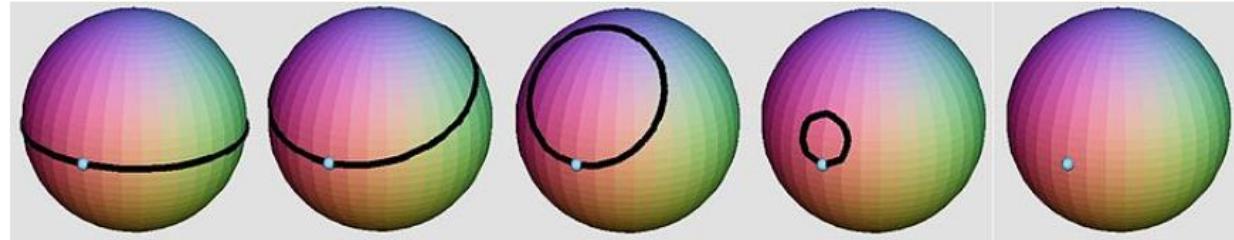
- 『차이와 반복』, "리만 다양체에서 공간은 더 이상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며, 공간 그 자체가 조건화된다." ("In a Riemannian multiplicity, space is no longer prior given, but is conditioned.")
- 『천 개의 고원』, "다양체는 관계들, 특이성들, 강도들의 장이다." ("A manifold is a field of relations, singularities, and intensities.")

## 위상 다양체

- 위상 다양체로서의 실재가 들뢰즈 실재론에 미친 영향으로서,
  - 1)특이점들의 분포와 배열을 위상적 관계로 보았다는 점,
  - 2)위상 공간의 연속적 변형을 생성, 변화, becoming로 이미지화 했으며
  - 3) 물리적 대상 이전의 존재론적 구조를 생각하게 했다는 점이다.
- 위상 다양체를 보는 들뢰즈의 의미
  - (1)연결성(connectivity),
  - (2)변형가능성(transformability),
  - (3)사건화(evental field)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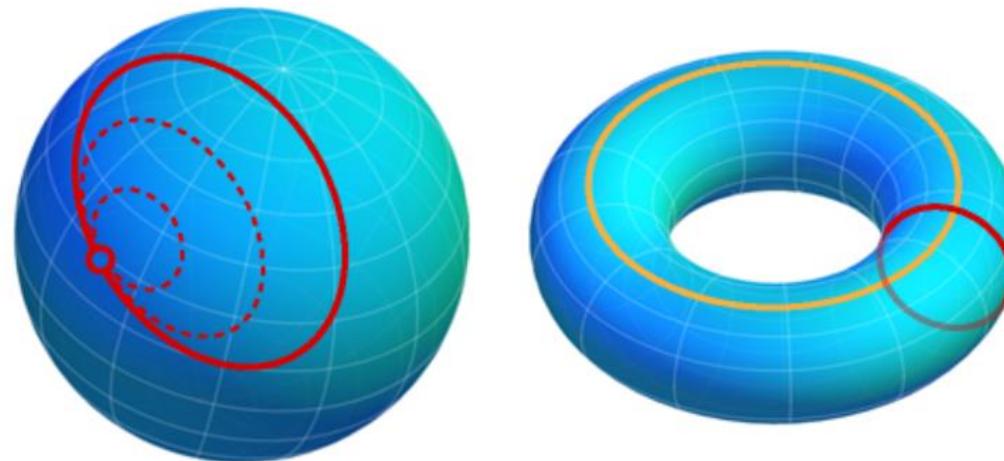
# Poincare Conjecture

Objects in which this is possible are spheres, ellipsoids and others.



All possible loops can be successfully tightened to a point

Some objects that don't fall in this category are torus. This is because in some points on the torus, a loop will get trapped like a lasso. A much more detailed article on the conjecture will be posted later.



Some loops get trapped like a lasso

# 라투르의 an ineffable

- 과학자 정보원의 경우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비과학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종교의 정보원인 경우 종교적이면서 가장 불경스럽기도 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이중성을 수긍 할 때 **연결망의 관계성**이 이해될 수 있다.
- 라투르는 이중적 태도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an ineffable “ je ne sais quoi,”의 태도라고 표현한다.

(존재양식68쪽)

# 라투르의 번역

- 정화작업 work of purification 자연과 문화를 나누다
- 번역작업 work of translation 자연과 문화를 붙이다

정화와 번역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처방 – 자연과 문화는 하나로 환원 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라투르의 생각이다.

\*\*\*\*들뢰즈에서 “정화”는 혼종, 잡다성, 차이, 우발성, 더러움, 감염 등을 제거하고 배제하는 위계적 시도이다.

# 브뤼노 라투르 Bruno Latour, 1947~2022

프랑스 인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과학기술학자

- *Laboratory Lif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 (1979/1986). 『실험실 생활: 과학적 사실의 구성』, (2019).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 1979 ; *The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 1986)로 바뀜
- *Les Microbes: Guerre et paix, suivi de Irréductions* (1984). 『프랑스의 파스퇴르화』, (2024).
-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1987). 『젊은 과학의 전선: 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연결망의 구축』, (2016).
- *Nous n'avons jamais été modernes. Essai d'anthropologie symétrique* (1991).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2009).
- *Pandora's Hope: Essays on the Reality of Science Studies* (1999). 『판도라의 희망: 과학기술학의 참모습에 관한 에세이』, (2018).
- *Cogitamus. Six lettres sur les humanités scientifiques* (2010). 『브뤼노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 인간과 자연, 과학과 정치에 관한 가장 도발적인 생각』, (2012).
- *Où atterrir. Comment s'orienter en politique* (2017).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 (2021).
- 『존재양식의 탐구: 근대인의 인류학』, (2024)

# 심신론, 바디와 마인드 관계

- (환원주의) 심적인 것은 물질의 국소화 **localized**를 통해 (전부 혹은 일부) 설명할 수 있다.
- (표상주의) 잠재된 마인드(언어/기호) 실체는 물질로 표상화된다. (외부세계로부터 혹은 2차적으로 관념화된 무엇무엇으로부터 표상화된다)**represented**.
- (반영주의) 세계(실재계)는 물질적인 언어/기호로 원리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
- (체화주의) 마인드는 바디를 통해 **embodied**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 (행화주의) 바디로 발현되는 행위가 세계를 조직한다. 그런 행위 *endo-action* 즉 행동수행은 마인드의 의지가 아니라 바디의 발현 **enactioned**이다.
- (신유물론1) 마인드는 바디와 하나로 얹혀져 **entangled** 있다. 마인드와 바디의 관계는 상호작용 *interaction*의 관계가 아니라 내부작용 *intra-action*의 관계다.
- (신유물론2) 마인드는 바디의 물질화 **mattering** 과정이다. : 물질화되는 과정은 개체 차원이 아니라 관계 차원에서 수행된다. 개체 마인드가 아니라 포괄적(사회적) 마인드이다.

'마인드'와 '바디'는 수사화된 용어로서 유망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마인드'는 인지과정을 함의하며 '바디'는 경험의 감각작용을 함의한다.

"나는 육체다. 고로 생각한다."

(Voltaire Letter Philo.sur L'Ame)

물질은 사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기존 형이상학자들을

조롱하는 볼테르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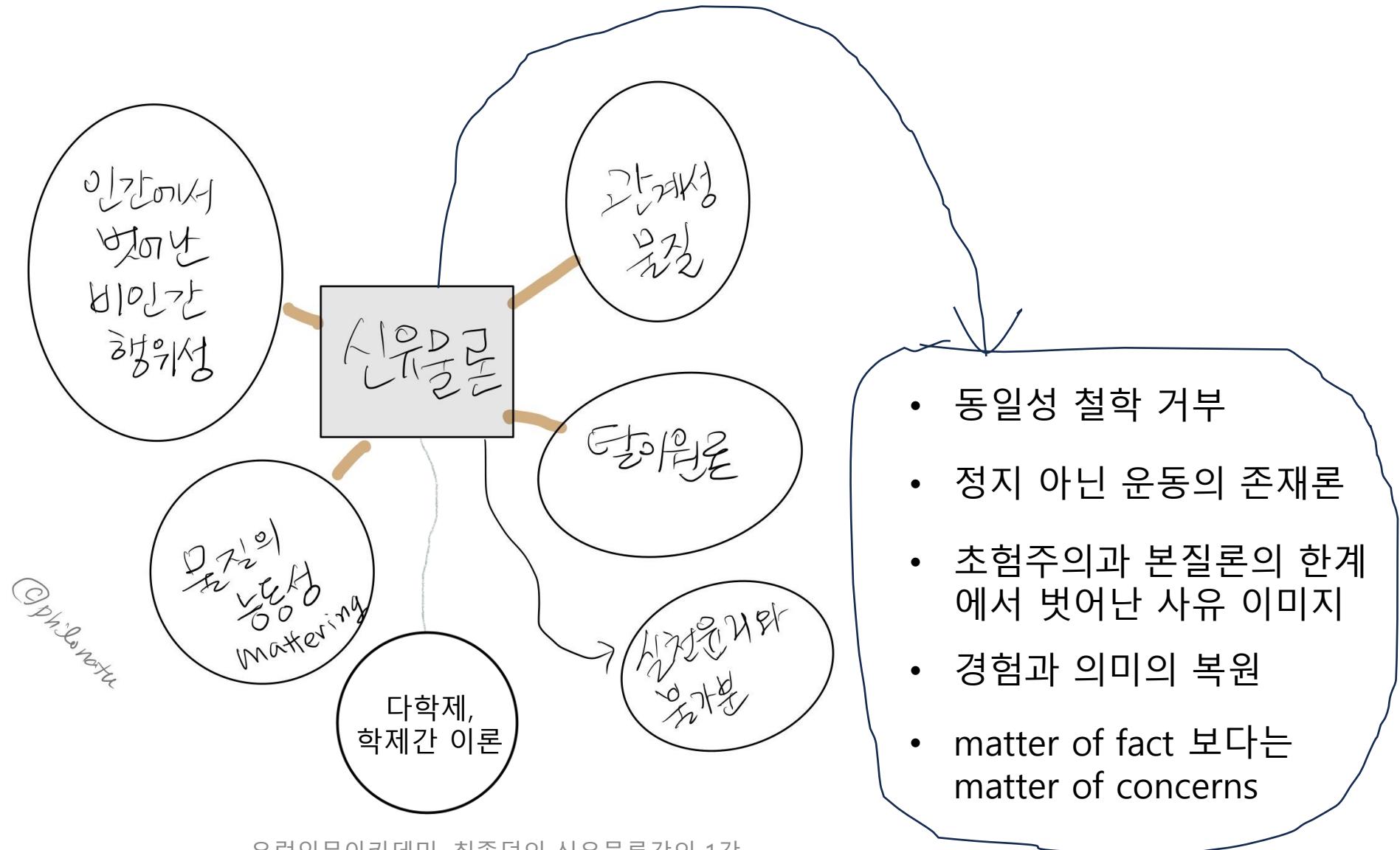
# 자연주의 개념의 맥 naturalism

- 자연주의 예술(문학, 미술) : 낭만주의에 대비된 예술사조. 사실주의 혹은 현실주의 realism에 연계되며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을 표현
  - 존재론적 자연주의, 형이상학적 자연주의: 플라톤 이전 자연철학
  - 인식론적 자연주의 :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한 자연주의로서 초자연성에 대척
- Naturalized epistemology** (a term coined by [W. V. O. Quine](#))
- 동아시아 전통의 자연주의 nature-centered naturalism
  - 자연과 인간, 자연과 문화의 결합체로서 보는 자연



물질의 스펙트럼	욕망의 물질	통속 유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사회의 물신주의를 일컫는 메타포로서 유물론</li> </ul>
	토대의 물질	존재론적 유물론	<p>데모크리토스 유물론</p> <p>형이상학적 유물론</p>
		과학주의 유물론	<p>기계론적 유물론</p> <p>환원주의 유물론</p>
	토대/관계의 물질	동력학 유물론	<p>변증법적 유물론</p>
	관계의 물질		<p>에피쿠로스 유물론</p> <p>생태학적 유물론 (레빈스와 르월틴)</p>
관계의 물질		신유물론	<p>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이론</p> <p>사변적 실재론으로서 신유물론</p> <p>공생-공산의 회절주의(해러웨이) 자연주의 경향(de Waal)</p> <p>행위 실재론</p> <p>네일 T. Nail의 능동적 신유물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고스, 초월성, 인간중심주의 탈피</li> <li>부엽토로서 인간/비인간 공생의 하이브리드</li> <li>물질/의식, 자연/문화, 객체/주체의 이분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거나 원래 그 사이의 경계가 없었던 얹힘의 관계</li> <li>배제가 아닌 포용inclusion하는 비인간 수행성 혹은 ANT</li> <li>물질의 능동성(그러나 생기론을 경계함)</li> </ul>
	발생의 물질	체화주의	<p>확장 인지론</p> <p>행동이 주체보다 앞선 행화주의</p> <p>유럽인문아카데미 최종현의 신유물론 강의 방법론화의 불교유물론(바렐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 안경과 실험실 현미경은 내 눈과 뇌의 연장extended</li> <li>인지는 몸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는 과정</li> <li>인지활동은 바디(물질)를 통해embodied 의미획득</li> <li>내가 행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화를 통해서 나와 세계가 자기조직된다.</li> </ul>

© philonatu.com



# 동일성 아닌 사례1

## 1장 기氣와 도道의 자연철학

것을 강조한다.(Henderson 1984, 34-5)

예를 들어 산과 해의 높낮이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만 음양 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 몽고 땅에 이어지는 북쪽 초원지대나 만주 땅 너머 툰드라 지역 혹은 서북부 사막지역에는 해의 높이가 낮고 산이 많지 않아서 음양 개념 설정이 어렵다. 음은 산에 비친 해의 그늘이었으며 양은 해가 직접 비친 곳을 말한다. 그러다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저녁이 되면 아침의 음지가 양지로 되고 양지가 음지로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음양은 절대적 점유를 차지하는 소여 실체 개념이 아니라 그 스스로 변화를 머금은 운동자의 개념일 수밖에 없었다.

오행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행이 가능하려면 풀과 나무가 새싹을 돋우고 푸르러지다가 다시 낙엽 지는 그런 산이 있어야 하고, 겨우내 얼었던

최종덕 2025, 한의학의 자연철학, 85쪽

# 동일성 아닌 사례2

계의 역설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관계 존재론의 사례로서 사람의 몸이 고립된 폐쇄계가 아니라 외부 시스템과 에너지를 항상 상호교환하는 소산消散dissipative 구조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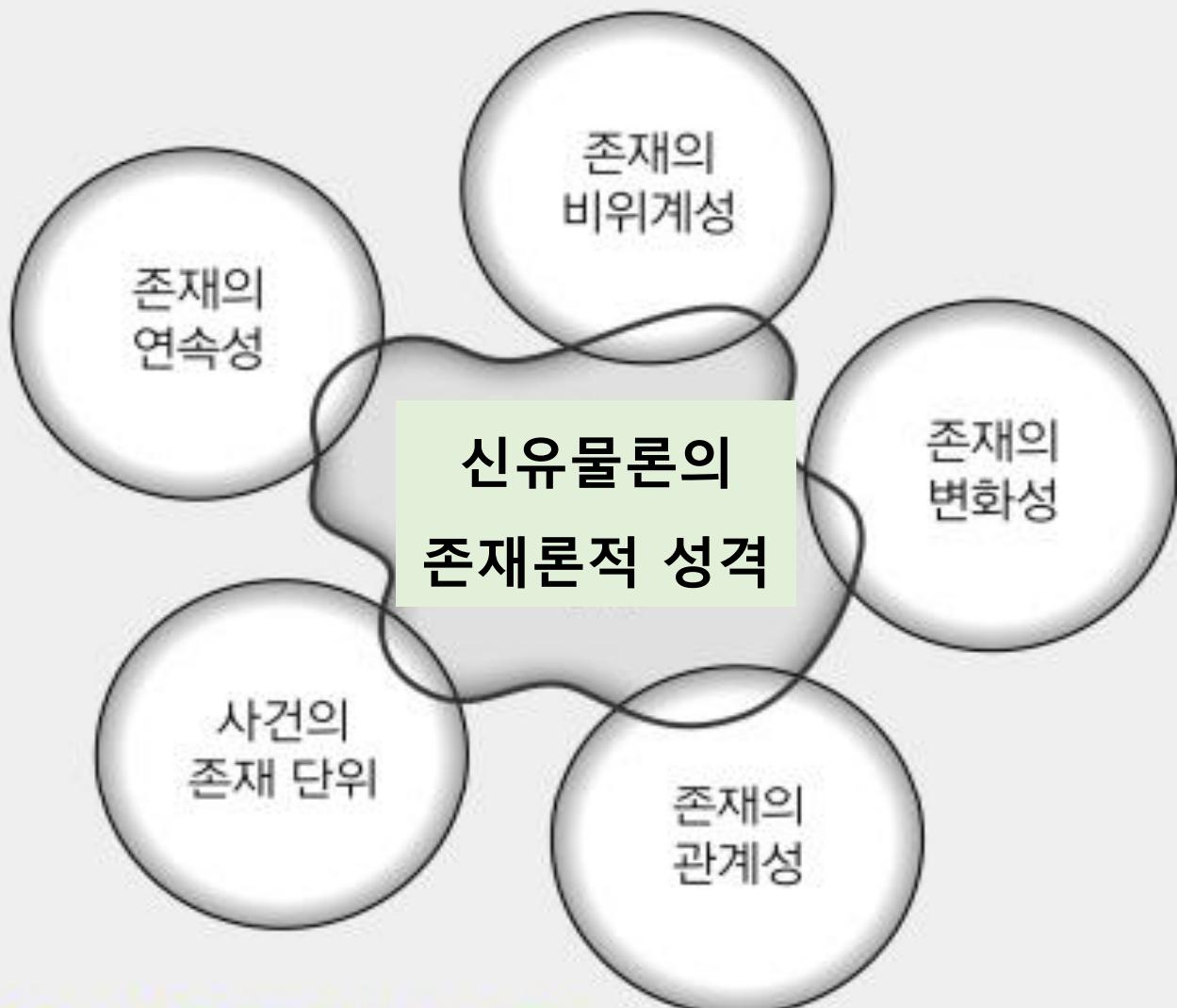
소산구조는 1977년 노벨상 수상자인 벨기에 화학자 프리고진(Ilya Romanovich Prigogine, 1917-2003)의 물질상태 관련 이론이다. 소산구조는 수렴하는 열린계를 설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소산구조는 비평형상태의 자기조직화를 특성으로 한다. 여기서 비평형상태란 외부와 단절되거나 외부에너지로부터 차단된 고립상태가 아니라 항상 외부와 에너지

107

2장 관계망과 위상공간의 한의학

를 교환하면서도 전제적으로는 항상 자기성selfness, self-identity을 유지하는 역동적 상태이다. 반면 평형상태란 완전한 고립상태를 말하며 더 이

최종덕 2025, 한의학의 자연철학, 107쪽



(최종덕 2023, 생물철학. 318쪽)

화이트헤드, 둘뢰즈 형이상학에 깔린 존재 혹은 실재

## 1강 2부

# 라투르의 연결망과 존재양식

# 라투르의 네트워크

- (1) 네트워크란 지하에 깔린 케이블이 아니라, 구체적 연결의 흔적이 드러나는 지도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택배 물류 네트워크, SNS 팔로잉, 바이러스 감염 경로도 네트워크다.
- (2) 네트워크는 물질적 + 사회적 + 기술적 + 우발적 + 특수한 모든 연결들의 총합이다.
- (3) 네트워크 자체는 흔적 *trace*, 흐름 *flow*, 연결 *connection*의 패턴이다.
- (4) 존재론적 실재성은 actant들이 가진 힘, 작동, 효과에 있고, 네트워크란 그것들이 "표면화되는 지도" 혹은 "흔적적 구성"이다.

네트워크 존재자체를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라투르의 “존재양식”이다.

- 라투르 존재양식에서 말하는 존재 혹은 존재자는 플라톤의 존재, 데카르트의 존재와 다르게 불변성 대신에 변화와 생성, 완전성 대신에 질문과 응답, 유일성 대신에 다수와 다의(다중성), 순수성 대신에 이질성과 복잡성, 독립성 대신에 연결과 맥락, 추상성 대신에 상황과 참여의 경험을 갖는 존재양식을 말한다.

# 라투르, 존재양식

1. 단일하고 유일하다는 플라톤 존재론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다수적이며 상호 생태의 존재이며 서로에게 소통가능한 존재의 모습이다. 존재론과 인식론이 합쳐진 구조에서 존재의 양상과 존재의 실재가 하나의 몸체를 나타낸다.
2. 라투르 고유의 형이상학으로서, 깊은 존재론과 관련되어 있다.(44)
3. 유일성 대신에 다수와 다중, 독립성 대신에 관계와 교차, 불변성 대신에 변화와 번역, 절대성 대신에 상호와 교차의 양태를 보여주는 양식으로서, 그런 존재양식은 인식과 **존재를 통합하는** 양식이다.

경제의 땅에서 생태의 땅으로 이주하기 위한  
설계도와 그 기초공사가  
라투르의 책 『존재양식의 탐구』다.

- 근대인은 경제라는 디스토피아와 생태라는 유토피아 사이를 떠돌고 있는 무리다.(50)
- 생태 유토피아를 라투르는 가이아로 은유한다. 주변에 눈을 뜬 일부의 근대인이 지금의 근대라는 인류학적 땅을 탈출하여 살고 싶은 곳을 찾고 있는데 그런 땅이 가이아이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라고 변함없는 땅은 아니라고 라투르는 말한다.(49)

# 존재의 무게 weight of being

근대는 존재를 수학화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존재의 무게를 무시한 채 경험론의 형이상학으로 빠졌다..

반면 라투르는 그런 추상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경험의 형이상학을 추구한다. 경험의 형이상학의 존재자들은 실제 reality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무게를 존중하는 태도를 라투르는 포기하지 않는다.

# 존재의 사양

- 재현도 아니지만 상상의 결과도 아니다
- 연속의 동위태isotopy가 아니라 불연속의 존엄성을 갖는다.(300)
- 존재는 차이로부터 생성된다(\*201)
- 존재는 비가시적 변신의 가능성이지만 비합적이거나 초자연적신비성과 무관하다.
- 외부적으로 재생산 양식을 보이며 내부적으로는 변신의 양식을 포괄한다  
(304)
- 존재는 초월성을 갖지만, 초월의 뜻은 사물의 계량주의를 넘어섰다는 것이  
지 경험을 넘어선 초험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 second-wave empiricism 2세대 경험주의

- 도약, 공백, 작은 초월로서의 경험으로서 굴곡진 길을 가는 행위과정course of action을 말한다. 그런 행위과정으로서 경험의 길은 “좁지만 높은 데까지” 갈 수 있는 존재 양식이다.(351)
- 존재의 궤적, 존재, 방향, 의미(sense or meaning)는 동의어다.  
Consequently, in this inquiry, trajectory, being, and direction, sense, or meaning, are synonyms(\*237, 352)

# 전-후건과 번역

1. 존재자의 전건과 후건을 연결하는 것이 번역이다.(74)
2. 여기서 “전건”과 “후건”이라는 용어는 논리학에서 자주 접했는데, 이 용어는 연속적 논리로 본 전건과 후건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 번역의 전건과 후건을 말하는 것이다.

\*\*\* 전후건 사이의 연결이 번역이라는 뜻은 화이트헤드에서 현실적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합생되는 과정과 같다

# 논리적 동일성은 없다

- 불연속성
- 변형
- 공백
- 도약

**불연속적 전후건 사이의 연결망이 바로 “번역”이다.**

## common sense상식

- 서로 다른 전치사, 나와 다른 범주들 사이를 관통하여 조율하는 관심
- 타자에 대한 포용과 배려
- (Whitehead에서 따온 개념)

## good sense양식

- 주어진 범주 안에서 주어진 관행에 맞춰진 수동적 인식과 그런 관계
- 타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애적 순환

## choreography(춤의 악보)

- 탱고를 출 때 춤추는 두 사람은 상대 동작(세부 움직임)에 서로 반응해야 하듯이 상호-반응은 춤추는 동작 춤사위 하나하나를 연결하여 새로운 창작무로 형성시키는 안무결합choreography(안무악보)으로 되어야 한다.(138)
- 코레오그래피 즉 안무결합 없는 기존의 대응 지식론은 일종의 과업분할division of tasks된 것으로 적합성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139)
- 코레오그래피없는 과업분할의 지식은 범주오류이며 동시에 근대인이 만든 대표적인 추상화의 오류이다.

# 라투르에게 화이트헤드 영향력은 크다.

- “연속성의 생성은 있지만 생성의 연속성은 없다” there is a becoming of continuity but there is no continuity of becoming는 화이트헤드의 말은 재생산 양식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다.(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35.)
- 화이트헤드의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생성은 계속 생성되지만(라투르는 이를 “반복”이라고 표현했다) 똑같은 것을 재현하는 생성 becoming은 결코 생길 수 없다는 뜻이다.

창설instauration, 라투르 예술철학의 기초  
예술철학자 수리오 Etienne Souriau(1892-1979)의 개념을 라투르가 차용한 것

- 예술가가 세계를 만나면서 세계를 창조하는 작품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세계가 예술가를 창조하고 있다.
- 예술가의 창작은 창조creation라고 부르고, 세계(존재의 연결망)가 예술가를 창조하는 것을 창설instauration이라고 부른다.
- 창조는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의 상호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불확실성, 불연속성, 존재고민의 댓가를 치루면서 공백의 고개를 넘어 가는 과정, 즉 창설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작품이 탄생된다.(243)

# 라투르가 지적한 "이중 범주오류"double category mistake

-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관념화된 물질 범주를 마치 경험적 연결망의 실제로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근대인의 가장 큰 오류이다.
- 재생산 존재양식은 연결망 없는 지시 양식과 다르다. 재생산 양식과 지시 양식 사이의 이중 범주오류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 라투르 주장의 기초다.

## Transalation 번역

- 불연속의 공백을 도약하여 새로운 재생산 존재에 이르게 된다.
- 다중성의 관계Common sense를 파악한다.
- 변형의 폭포cascade
- 굴곡의 언어crooked talk

## Displacement 단순전송

- 동일 범주, 동일 지층 안에서 연속적인 이동만 있다.
- 대응론적 지식으로 제한된다.
- 합리성에 묻혀버린 Good sense의 근대성
- 직선의 전송-straight talk

# 절합,

# 단절과 비교

- 절합을 통해서 존재자들의 이음매 junctures가 작동된다.(존재양식219쪽)
- 절합은 여러 다양한 존재자들을 이어주는 마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디가 돌아갈 수 있는 공백을 포함해야 한다.
- 겉보기에 공백은 불필요한 요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음매 역할에서 가장 중요하다.
- 우리는 그런 공백이 방향과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 작은 초월

- 초월성이란 객체(혹은 사물이나 대상)를 묘사한 기호, 기술, 해석, 인형 등이 해당 객체를 도약하여 큰 상상력의 공백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형성된 결과를 초월성이라고 한다.
- 플라톤이나 헤겔의 철학처럼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초월성이 아니며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주의 초월성도 아니라 가장 경험적이지만 언어로 표현하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탈기호적 경험 영역을 초월적이라고 라투르는 표현했다. 그리고 그런 초월을 “작은 초월”이라고 말한다
- 들뢰즈의 초월적 경험과 비슷하지만, 경험하는 주체의 초월이 아니라 객체 자체의 초월에 가깝다. 경험을 경험하는 작용이다.



미셀 푸코가 인용하여 더 유명해진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 벨기에) 작품(1929)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This is Not a Pipe; “Ceci n'est pas une pipe”)

# 절합 articulation

- 세계가 기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경험의 발화와 반복의 절합이라는 the world itself that is articulated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절합은 관계맺기의 고리들을 의미하는데, 반복의 경험이 절합 없는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결국 기호는 언어의 고립으로 빠진다.
- 절합의 의미를 상실한 기호들의 세계는 근대인들만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세계일 뿐이라는 점을 가이아는 경고하고 있다고 라투르는 말한다.(380-1)